2023 필진 소개

현대불교신문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보강했으며 경전교리를 비롯해 문화 · 불교의례 · 인문학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5세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스님은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 주요 불교학회의 학회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각 교육기관 등서 미학과 명상, 불교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다양한 수행문화단체 등과 철학 세미나를 비롯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미국 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미술관에 간 붓다〉 〈은유와 마음〉 등이 있다. 현재, 해인사 국일암 감원으로 주석 중이다.



백도수 교수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 조계종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지냈으며, 제18회 조계종 역경상 · 제2회 전법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 교수와 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책임연구자문, 고요한 소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과 사유

임병학 교수의 '꽃차와 사상의학'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임병학 교수가 꽃차와 사상의학을 주제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심신의 치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사상의학은 마음론이자 기(氣)철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밝히고 있다. 꽃차는 꽃을 기본으로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꽃차는 우리 민족의 대용차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기운을 좋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 연재에서는 꽃차에 대한 기본정보, 꽃차의 약성, 꽃차와 마음 · 기(氣)작용, 꽃차의 음용법, 사상인별 음용소감, 꽃차의 음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효민 작가의 '서도로 새기는 불교 경구'



부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본 연재는 그 중에서 대중이 실생활에서 가슴에 품고 살면 좋을 문구들을 서예를 통해 소개한다. 효민 작가는 대한민국 서예문화협회 초대작가이면서 와룡미술관 설비 추진위원장이다.

필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실생활에 접목하여 편안하게 대화의 글로 또 서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글을 엮을 예정이다. 서예라는 道와 佛法의 만남이다.

소설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영화 '관상'의 원작자인 백금남 작가의 신작 소설이다. 붓다의 모습을 그리려는 금어가 자신이 그려내는 그림을 통해 절대 경지를 보려 한다. 무위자연의 상태, 즉 붓다의 경지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의 모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은 붓다가 남긴 지혜의 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붓다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다. 지혜의 칼은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칼이다. 필자는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한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로 주목받았다. 소설 〈유마〉는 32년 만에 탈고한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경전교리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반야불교연구원장 지안 스님이 〈승만경〉에 이어 〈능엄경〉을 강설한다.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경〉이라 부르기도 하는 〈능엄경〉은 전 10권으로, 전체 경전에 걸쳐 수행의 근본대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하고 있다. 〈능엄경〉을 소화엄이라 말해왔듯이 대승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융화 · 회통하여 여러 가지 수행체계를 폭넓게 설해 놓고 있다. 대 · 소승, 현 · 밀교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지안 스님의 꼼꼼하고 적확한 강설이 또 한 번 기대된다.

지휴 스님의 '능가경 강설'



사단법인 여시아문 선원장을 맡고 있는 지휴 스님이 새로운 형식의 강설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에 이어 〈능가경〉 강설에 나선다.

〈능가경〉은 여래장사상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으로, 불교의 여러 학파의 교설을 풍부하게 채택하여 혼합시켰으며, 여러 교설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경험 속에서 결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경전이다. 일찍이 선종에서 많이 채택되었는데,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가 중요하게 여겼다.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인 구선 스님이 〈묘법연화경〉을 강설한다. 20여 년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스님은 〈법화삼부경 제1부 무량의경〉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다. 묘법연화경은 '묘각을 이루는 방법', '정토불사를 이루는 방법', '정토불사 이후에 일어나는 여래장계의 변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경전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경전은 〈묘법연화경〉이 유일하다. 이것이 묘법연화경의 가치이다.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묘각 이전의 수행절차에 대해서도 짬짬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획연재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전통 목조건축의 단청 문양과 벽화 등을 20년 넘게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노재학 작가가 불교장엄 중에서 목조각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불교장엄에서 목조각, 혹은 목공예 분야는 불상, 불단, 닫집, 광배, 꽃살문, 목각탱, 목어, 화반, 전패, 현판 등 다채롭다.

한국산사 목조각 장엄에 대해 분야별 조형원리를 설명하고, 분야별 주목되는 걸작 하나를 뽑아 조형에 담긴 본질과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한국산사가 간직한 목조각 걸작들을 하나씩 찾아간다.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불교의례는 수륙재 · 영산재 · 예수재 등 대형 재회(齋會)에서부터 일상의 수행 · 생활 의식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의 종교적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의례'와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재의 규범적인 모습만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전승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한 것은 물론,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중생과 함께해왔다. 불교 의례의 여러 면모와 상징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과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 위상과 특성을 조명해본다.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불교는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 놓은 팔만대장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창고이다. 그러나 대장경은 너무 방대하여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이 연재는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인 선(禪)의 입장에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혜를 찾아 전해보고자 한다. 연재를 통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현재 불교인재원과 고양 흥국사에서 참선을 안내하고 있다.

기획연재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현상들은 불교 경전에 적혀 있고, 이는 불교미술로 도상화됐다. 깨달음의 접경에 있는 그 생생한 모습들을 담아낸 국보 · 보물급 불교회화에 내포된 미학을 불화 전문가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소개한다.

이안의 '미디어 인 붓다'



세상에는 볼 것들이 너무 많다. 각종 OTT부터 개봉 영화, 드라마, 공연 등등….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 불교적 내용과 해석이 담긴 작품들이 없을까.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의 저자 이안 영화평론가가 불교적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한다.

불교인문학살롱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은 시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인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찰하는 학문이고 불교는 삶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다. 불교가 인문학과 폭넓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이유다. 이처럼 불교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전문 필진들이 동서양의 고전,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불교와 인문학으로 풀어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신흥사 교육기관 / 장학재단
· 신흥사 향성선원
· 백담사 무금선원
· 백담사 기본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원각사)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성준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연꽃어린이집
• 춘천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관
• 금강반야마을

춘천불교방송
• 춘천 영서지역 FM100.1Mhz
• 속초, 고성 FM93.5Mhz
• 양양 FM97.1Mhz
• 강릉, 동해, 삼척 FM104.3Mhz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